

佛教新聞

060-700-0048

분기 2557년 10월 5일 (2013년 / 단기 4346년 문편 9월1일)

1 bulgyo.com



유진룡 장관 진심은 무엇인가

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(사 진)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와 주요성은 이사하고 이느가? 서사 보 성사 규동관세용보상화상의 일본 반 화음 시사하 최근 방언을 계기로 유 지료 자과이 무하고 이시이 강아되

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점이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는 한 린 상태에서 문화체육과과부 장과이 성급하게 이상은 바이 것은 제공하 처신이 아니라는 비판이다. 대한불 고정너하는 유진료 문화제요관관부

이강은 비와 어로운 오지로 무하 세요관광부 장관이 불규모하대를 비 보하 서조들이 불권주 문하요사에 대하 기보쟁이 이식이 부족하네 기 인하고 있다.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 보살좌상제자리봄안위원회와 문화

는 사람이다

반가사유상 국외 반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이어

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상 '이본 바鉢' 시사 박언 문화재 인식 비판 '확산

재제지리하기 등 미카이 무하으사 소용 이지에 비용 이런런 정보이 조 무 장관은 본연의 임무를 수수방관

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 정왕후 어보 반환과정에서 당국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물 로 지난 8월 구난 제838 교통비를 보상반가사유상의 뉴용메트로반물 관 전시를 위한 반출이 불하에서 하 가로 바뀌는 과정에 유 장관이 '영



나오고 있다 당시 문항체요 29 29 Male * 22 지료 무하세요 관광부 장관의

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반물관이 곳동 가사유사의 군인반층을 추가로 위가 공기로 해다"고 바람 사십사 '얼하

리 을 행사했음을 인정했다. 부석사 봉상 반환 시사와 급등미

니다"면서 "금둥미륵보살반가사유

것이며, 장관의 뜻은 그렇지 않다"고 특보살반가사유상 뉴욕 전시 등 두 가지 사례에서 화인된 건처럼 유진 용 장관의 문화재 관련 조치와 받언 은 우리 문항유사에 대한 가치의 중 ONE OURST OUTS HURS IN 할 수 없게 됐다. 문명대 동궁대 명 예교수는 "장관이 해야 될 말이 이

거 강나!"에서 "조모자파이르서 오리 문화되어 소주하여 대해 다우 김계 공부해야 한다"고 경력했다. 이러와 지원에 대해 오동호 문의 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본지 와의 통화에서 "봉상이 불교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문화재인지 잘 알고 이다"며서 "이보 어로에서 자기들이 희망이 섞인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된

상의 미국 전시에 이어 부석사 불성

다"고 지적했다. 문명대 교수는 "네

교문화재에 대한 인심이 전혀 없는

유진류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9 월27일 시모무라 하루분 일본 문부 과학상과의 회담에서 서산 부석시 그두까유난사하사유 "인보에 동편 줘야 하다"는 취지의 박연으로 물의



3년대 초문원장 호보 지수스니라 보셔스니이 지나 9월31인 영혼호리 등 도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장으로 가기

통도사=김영주 기자

교구중심 불교발전 '한마음'

자승스님, 총본산 성역화 등 공약 중점 설명 보선스님 '욕포은 지도자 연량과 선신' 가조

안 50%정도 이불 수 있다"는 점을 보사주지位 찬아 종책성명

34대 총무위장 선거 후보이 기호 이 나라히 영송하리 동도사를 찾았 다 지나 예약하인 제20차 조세족 교 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가 열린 통

도사를 방문한 후보 스님들은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인사를 건네 더 후보병 종생은 성명했다. 먼저 자승스님은 8대 공약 기조 가운데 교구중심제, 총본산 성역화

수건노용보지 강하 등 세 가지 곡 약을 중점점으로 설명했다. 자승스 님은 "본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지역불교가 확성화되지 않고 비대 해지 축무원은 보다금으로 보다스 런다는 색각은 각고 보시가 주시어 돼 교육, 포교, 복지를 담당해야 한 다"며 "본사가 확성화되고 지역됨 교의 모토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중 심으로 가야 한다"고 말했다. 또 회근 서울시와 MOLI를 체결한 종

본산 조계사 성역화는 4년 임기 동

11216Fr3

보선스님은 "우리가 중책은 얼마 든지 세울 수 있지만, 그것을 얼마 나 시체하고 외수에 가느냐는 음과 으 지도되어 여름다 시시 그야 다 불어 같이 행하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내지 중도들의 몫이라고 생 각한다"며 "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보래 가지고 있는 청정승가의 구원 으로 모든 신뢰와 존경을 되돌려서 &무위장 후보에 임했다"고 좋마이 유를 밝혔다.

려서 그 바탕 위에 기본적인 인재 양성, 전번포교, 연경을 바탕으로 DE 축제용 세워(Fit) 고구주시회 와 모연전담기구 설치를 강조했다. 이어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는 곳정한 선거품부를 만들지는 의

견을 나눴다 ▶충무원장 후보 인터뷰 2~3면 정병은 경남동부·윤산지사장

D-5 총무원장 선거 선거인단 선출 완료

195회 임시종회 유회 종책토론회 개최 논의

오는 10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 장에서 치러지는 제34대 조계종 홍 모양자 서기가 되었 안으로 다가요 면서, 선거웨기가 고조되고 있다.

9월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검 권 초모임자 서기이다 서층은 따드 리해, 240명의 선거인단이 확정됐 다. 이와 관련해 조계중 중앙선거 관리위원회(위원장 뱀여스님)는 오 는 7일 회의를 엮어. 후보자 및 선 거인단에 대한 자격을 확정할 예정

일보 교구보시에서는 교구종이 위법논라도 있었다 마골사 동화사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소했다. 자승스님 선대위에 서는 주와서파의에 변조자 쌓게자 봉도사 교구중회의 위법의혹을 제 기했다.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마 SUM SERVICE SUMBLES OF 건,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, 법주사 는 소견서를 받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종책토 모하가 되어났다는 휴년지역이 이 왕에 따라 1일 오후 각 후보 선대의 와 세부사항을 논의했다. 각 후보측 은 후보자 자격심사 후 투분하를 개 SHREET SHOUSES HEXTUR GEXT 다자 등 투본방식에 대해서는 이건

와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회 기로 예고됐던 제195회 중앙중회 이시하는 사람이다는 요하였다. an 명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36명이 참 석배 정축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인시중의 유의를 두고 자승스님 축과 보선스님측은 공방을 이어갔 다 보선스님 선대위는 "자승스님 서대의 소소 이의 스니듬이 조지저 O근 설차하네 mrs 의시족이가 모 산됐다"며 "직무유기라는 비판율

피할 수 없을 것"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자승스님 선대위는 "총무원장 서기기가에 사다바 요난용 비바퀴 고 공명선거를 가장해 종법이 정한 총무원장 자격을 시비하기 위해 추 지되 이번 중약중에는 그 자체로서 조유의 일"이라며 부선스님 선대의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의 환회와 번

한반도평화대회

어원격 기지

성을 최구했다.

유 장관 발언 '깊은 유감

조계종총무원 봉안위 잇따라 항의 논평 발표

대북청 '자지사퇴' 총구

서산 부석사 규동보살화상 바위을 시시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이다. 조계주 초모임으 목로 서 산부성사근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 이 일따라 항의 논평을 방퓨하면서 비판 여본이 화산되고 있다

호브웨으 지나 g위에의 무하되지 지명스님과 대변이(기회심장) 주경 스님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"우리 나라의 문화를 챙이지고 있는 장귀 이 진위를 떠나 오해를 불러일으키 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 런게 새기하다"면서 "보서사 복사으 보자를 기로 등은 상님을 때 정사된 이 방법으로 반출되었다고 보기 어 럽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에 형상의 인수 경위 규명을 촉구해 01-88m3" to 25%-88m3 서산부석사금통관제용보상화성

제자리봉안위원회(공동대표 주경 도시 - 정병 스님, 김경의 김원웅 의 승류)도 "정부가 취모으로 일과하다 가 이번에 주무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강을 퓨시하지 않을 수 없다"면서

"이번 파문은 그동안 일본 내에서 더욱 세계 했다. 대불왕은 9월30일 아이(배에)화도를 하는 이보 보스네 '무하오사네 대하 시대조이제 비어

런에게 하군이 문화재 회담(被領)군 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"는 내용의 입장을 9월 3091 박태영다

가에서 약담(故豫)국가처럼 오인되

양따라 하는 유진룡 장과의 자전시 테를 이고하다는 제품이 성명성됨 발표했다. 대불청은 유 장관의 부석 사 봉상에 대한 일본 반환 발언과 국 보 제38호 규동미를보십반가사유산

역기하 및 "무하조리용 지역이 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이 보여준 모습 은 매우 실망스럽다"고 평가했다. 이 이 대불청은 "문화유산정책에 있어 이따라 구마들에게 심마감은 조는 유 장관의 자전 사람들 요구하다"고

시 문체부의 수수방관 등의 사례를

2014 🐧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

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산에작가 등음문인 '2014 불교신문 신촌문에' 등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.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업 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흥문에에 불교문하여 관심있는 신전작가들의 음모를 기대합니다.

□ A 및 2121: 20034 119 119(8) - 129 119(c) etc. 다 유 모 대 상 :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전작가

□ 공 모 뿐 야: -단편소설 사단coop 원고지 70세 네외

- ERECTE 000ERE

্র ওপ্রথম : 2006년 1월 1일 বিবিষ্টার ক্ষেত্র কর বছর ম

- 돈닭 부문(200차 원고기 30에 내회) - 시: 시조 부문(3면, 5면이상은 청수반지 않습니다)

DF9: 0000-4990 IASH GG

불교원문사











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

2013년 9월 27일(금)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대회가 원만히 회향되었습니다. 참여해 주신 5만 불자 및 그동안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보기2557년 9월 30일

